

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하얀 거짓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8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녹색마차>
30 KBS 뉴스	00 아침드라마 <정화홍련> 30 여유만만	9 30 기분 좋은 날	05 좋은아침 플러스원 3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행복한 세상 55 여성공간	40 지구촌 뉴스	10 45 MBC 뉴스	40 SBS 뉴스
55 바른말 고운말	00 VJ 특공대(재)	11 00 주말연속극 <잘했군 잘했어>(재)	00 월드컵 세계의 도시문화탐방
00 KBS 뉴스 12	10 일코르 일일연속극 <미우나 고우나>(재)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광주 MBC 창사 45주년 특별생방송 <일자리가 희망입니다>	00 뉴스와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결집선 <해신>(재)	30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길>(재)	1 15 특집 TV 3사 합동토론 <도청발전 설계변경 가능성>	00 네트워킹현장 고향이 보인다
00 KBS 뉴스 10 KBS 중계식 푸에코	10 KBS 네트워크-청주	2 15 특집 TV 3사 합동토론 <도청발전 설계변경 가능성>	00 SBS 뉴스 10 TV 3사 합동토론 <도청발전 설계변경 가능성?>
50 네티나무	00 2TV 스페셜 코미디소 회회낙(재)	3 00 뽀뽀뽀 아이즈 30 우리는 명탐정	00 일지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오늘의 경제 10 사랑의 가족 35 TV유치원 파파파니	10 꼬꼬미 꿈동산(재) 40 유후와 친구들	4 00 뽀뽀뽀 아이즈 30 우리는 명탐정	00 일지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15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10 2TV 하이라이트 <위기탈출 넘버원>(재)	5 00 MBC 뉴스 20 요리보고 세계보고 베스트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사투리쇼 열풍말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 토크 우리 사는 세상	10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30 MBC 뉴스 50 남도부보상	25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러브인 아시아	10 무한지대	7 20 따뜻한 TV 45 일일시트콤 <태희 해고 지연이>	05 시사타자 토크부담 15 일일 드라마 <두아내>
25 일일연속극 <다함께 차차차>	00 KBS 8 뉴스타임 20 KBS 8 뉴스타임-광주전남 30 30분 다큐	8 15 일일연속극 <밥 쥐>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생활의 달인
00 KBS 뉴스 9	00 1대 100 55 월화 미니시리즈 <갈흔 웃어는 남자>	9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포츠뉴스 55 창사 48주년 특별기획 <선덕여왕>	55 SBS 대하사극 <자명고>
00 시사기획 씬 50 네티나무		10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포츠뉴스 55 창사 48주년 특별기획 <선덕여왕>	
00 KBS 뉴스라인 30 콘서트 필	05 상상+	11 15 PD 수첩 <질병방역시스템>	05 긴급출동! SOS 24
15 KBS 뉴스 25 스포츠 스포츠 35 영화가 좋다(재)	15 생방송 시사 360 45 클래식 오디세이	12 05 MBC 뉴스 24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특선 다큐멘터리 <인류가 사라진다면 2부>	15 나이트라인 45 세상발전 유레카재

‘막장에 막장’ 드라마 시청자는 역겹다

MBC ‘밥쥐’ 부부강간 연상 장면 논란...각 사 드라마 불륜·복수 남발

“막장 막장해도 이런 막장은 처음 본다”(‘밥쥐’ 시청자 게시판 중)
 지난 3일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밥쥐’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며 TV를 시청하는 시간에 부부강간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방송돼 낮이 뜨거웠다는 지적이다.
 ◇계속되는 막장=막장 드라마에 대한 비판은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밥쥐’ 외에도 MBC 아침드라마 ‘하얀 거짓말’과 SBS 일일아침연속극 ‘녹색마차’도 비난과 복수의 자극적인 소재로 막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 종영한 SBS 일일드라마 ‘아내의 유혹’과 KBS 일일드라마 ‘너는 내 운명’도 불륜과 극단

적인 복수, 우연의 일치 남발 등으로 막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왜 막장인가=이러한 논란 속에 서도 대부분의 막장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어 ‘욕하면서도 보는 드라마’라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3일 방송된 ‘밥쥐’의 경우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15.5%로 일일드라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하얀 거짓말’은 22~24%대, ‘녹색마차’는 10~12%대를 보았다 ‘너는 내 운명’은 40%대를 넘은 대박 드라마였으며 ‘아내의 유혹’도 30%를 넘어서는 등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다.
 전문가들은 막장 드라마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시청률을 꼽

고 있다. 시청률이 높으면 해당 드라마에 광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송사로서는 막장의 유혹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각 방송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저녁 8~9시 뉴스의 시청률은 직전에 방송되는 일일드라마의 시청률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막장이란 비판을 들으면서도 방송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법은 없나=전문가들은 연달아 나오는 막장 드라마를 규제하기 위해선 사후 규제 강화와 드라마의 방송 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박웅진 연구원은 “방송사 스스로 규제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시청률 문제와 ‘쪽대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뻔뻔하게 돌아가는 드



〈MBC 일일드라마 ‘밥쥐’의 한 장면〉

라마 제작 여건상 사전에 규제하기 쉽지 않다”라며 “방송심의위 등 외부 기관에서 경고를 주어진 제작진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방송사에 물리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18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능비독대회

‘백전노장의 등장’ 3회전 1보 (1~13)

白 이덕수 5단 黑 유흥주 5단
<변호사회> <KT>

직장동호인들의 바둑재민인 광일배 직장대항전이 회전이 거듭될수록 대접전을 벌이며 뜨거운 열기 속에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번 대회의 최고령 참가자인 변호사회의 이덕수 5단과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KT의 유흥주 5단의 대결을 소개한다.
 이덕수 5단은 본 대회에 1회부터 꾸준히 참가해 화려한 전과를 올린 바 있는 백전노장으로 이지역 유명 바둑인들 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원로이다. 특히 작고한 고광락 선생(프로 2단)과는 수십년동안 술한 대국을 벌인 것으로도 유명하며 한창때는 이지역 법조계의 1인자

로 군림했을 정도로 기력이 출중했다. 몇 년동안 출전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참가했으나 1회전에서 고도소팀의 허승 5단을 꺾는 등 노의장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유흥주 5단은 직장바둑계의 강자인 KT의 주전으로 본 대회에서 우승 등 술한 임상경력을 기록한 바 있는 강자로 이번에도 역시 단체전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판의 관전포인트는 노장인 이덕수 5단의 선전여부가 초점이다. 과연 또다시 승점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한 한판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7일(음 5월 15일 癸丑)

子	36년생 부부의 일정이 예상되니 서로 사랑하라. 48년생 시간을 내어 주변을 살펴봐라. 60년생 심기가 개운치가 않으니 운동을 해라. 72년생 재충전하라. 84년생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모든 것을 살피워주라 정리하라. 행운의 숫자 : 08,30
丑	37년생 유흥 속에 허송세월 한탄 하라. 49년생 자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할 때. 61년생 자기개발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라. 73년생 자녀로 불륜이 있다. 85년생 직업의 잠재와 재물의 불륜이 있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9,37
寅	38년생 직장에 고민이 생기니 현명하게 처신해라. 50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도 있는 것은 아니다. 62년생 경변한 하루나 고쳐수는 있다. 74년생 하늘 한번 우러러 보라. 행운의 숫자 : 10,40
卯	39년생 할 일이 많으니 건강을 점검 해봐라. 51년생 후배와 금전 거래는 금물. 63년생 근긴한 말쑥이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을 잘 살펴봐라 할 때. 75년생 길사가 계속 될 것이니 손아래 사람의 고충을 생각하라. 행운의 숫자 : 11,27
辰	40년생 남자는 처가 쪽을 여자는 시가 쪽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라. 52년생 대고는 없지만 득도 없다. 64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하라. 76년생 막힌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안내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2,41
巳	41년생 모든 일이 즐겁게 시작 된다. 53년생 문서는 꼼꼼히 살펴서 확인해야 하라. 65년생 보증을 절대금물이고 부부간에 대화를 해야 할 때. 77년생 부부 및 주변에서 소사에 소생이 일어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0,43
午	42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니 응시하며 살아라. 54년생 발걸음은 가벼우나 마무리가 시원치가 않다. 66년생 부부간의 등산으로 기쁨을 시도해 보라. 78년생 부부간의 사랑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 행운의 숫자 : 05,25
未	43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이 덜어진다. 55년생 새로운 문서와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니 주변을 살펴봐라. 67년생 순조로운 진행은 정직과 신뢰에 있다. 79년생 여성을 만날 땐 꼭 결혼한 선배와 상담하라. 행운의 숫자 : 07,36
申	44년생 옛 것으로 마음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56년생 동거 있게 전전하면 무리 없이 결과가 좋다. 68년생 지혜 있는 선배와 상의하고 항상 언행을 조심해라. 80년생 처나 남편이 끈기에 처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4,27
酉	45년생 침체현상을 아래 사람에게 내 건 조다는 마음대로 극복하라. 57년생 투자는 마무르고 신사업의 내실을 기하면 실적고든은 오히려라. 69년생 헛 서서 잡고 눈물도 날 수도 있다. 81년생 희망의 새아침을 만난다. 행운의 숫자 : 17,38
戌	46년생 가정과 부부간의 불화는 쌍방과실이니 사랑으로 해결하라. 58년생 고목회출이니 더욱 더 잘 가라. 70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의 아픔들이 보인다. 82년생 도의를 사들이 못 본채대로 괴로워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20,41
亥	47년생 될 듯 될 듯 계획이 계속 미루어진다. 59년생 뒷일을 마무리 할 사람이 없다. 71년생 마지막 고생이 남아 있다. 83년생 모든 일이 갈사로 연결되며 이상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1,2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EBS

06: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09:45 치료와 친구들	15:20 알록달록 콩콩이	19:25 이상한 나라의 풀
06:30 세계대미기행	10:00 60분-부모	15:35 달라라! 도라지(재)	19:50 동물캠프의 비밀
07:10 리틀 프린세스	11:0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깨미랑 부키(재)	20:15 우당탕탕 마술
07:25 신기한 스킨버스	11:30 디류 프라임	15:55 덩동덩 유치원(재)	20:20 귀중장사 만만세
07:50 척척폭죽 처깅턴	12:20 하나뿐인 지구	16:15 리틀 프린세스(재)	20:50 세계대미기행
08:00 덩동덩 유치원	<2009 달래강 보고서>	16:30 페넬로페, 뭐 할까?(재)	21:30 <생방송> EBS 뉴스
08:20 그림 그려줘, 루이	13:10 공부의 달인	16:35 척척폭죽 처깅턴(재)	21:45 지식채널 e
08:30 달라라 카카	13:40 문학사랑	16:45 빨강아리 연	21:50 디류 프라임 (인덱스)
08:40 달라라! 도라지	13:45 똑똑! 영어놀이터	17:10 워드 월드	22:40 공부의 달인
08:50 깨미랑 부키(재)	14:05 치료와 친구들	17:35 신나는 과학 애니메이션 <Why?>	23:10 디류 10+
09:15 뽀뽀뽀 뽀로로	14:20 뽀뽀 시즌2	17:50 <생방송> 특! 특! 보너스!	생명과학 혁명
09:15 방귀대장 뽀뽀이	14:30 워드 월드	18:50 뽀뽀 시즌2	00:00 지식채널 e
09:30 물리와 나	14:55 뽀뽀뽀를 찾아라(재)	19:00 EBS 스페이스-공감	00:05 EBS 스페이스-공감
09:35 뽀뽀뽀를 찾아라	15:05 방귀대장 뽀뽀이(재)	19:00 스톱 호크	00:55 문학사랑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7:00 EBS 포스(수학 1)	08:00 EBS TV 중학 1학년(국어)
07:50 EBS 기본과 특별한(국어)	08:40 " (수학 1-1)
08:40 " (사회)	09:20 EBS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수학 1-1)
09:30 EBS 학습자료실 클리! 사이언스	10:00 방귀대장 뽀뽀이
09:40 EBS 수능 플러스(수리영역)	10:15 덩동덩 유치원
10:30 세계대미기행	10:35 알록달록 콩콩이
12:00 EBS 내신강(국어)	10:50 뽀뽀뽀를 찾아라
12:50 " (화학)	11:00 요리조리광광
13:40 EBS 기본과 특별한(재)	12:00 EBS TV 중학 2학년(국어)
14:30 " (사회)	12:40 " (수학 8-가)
15:20 EBS 탐사선(재)	13:20 EBS 중학 2학년 퍼펙트 체크업(수학 8-가)
	14:00 중학 사고와 논술
	15:30 2009 공민중개사
	16:00 10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3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17:00 EBS초등 친절한 선생님
	17:30 " (수학 3-가)
	18:00 " (수학 4-가)
	18:30 " (수학 5-가)
	19:00 EBS TV 중학 1학년(국어)
	19:40 " (수학 1-1)
	20:20 EBS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수학 1-1)
	21:00 EBS TV 중학 2학년(재)
	21:00 EBS TV 중학 2학년(재)

<h3>굿모닝 잉글리쉬 <1341></h3> <p>I made a mistake 제가 실수했네요</p> <p>A : I can't believe you forgot to tell me. B : I'm sorry. I made a mistake. A : I know, but it cost me my job. B :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I'm sorry? That's a month ago. A :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자네가 나한테 알리는 것을 잊었 다니 말야. B :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A : 그렇지, 하지만 그 때문에 나는 일을 망쳤잖아. B : 제가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것은 한 달 전일이잖아요. * make a mistake = 실수하다 * cost : 손해를 끼치다</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h3>오하오우 니혼고 <1341></h3> <p>そこになにがありますか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p> <p>A : そこになにがありますか。 B : ここに電話(でんわ)があります。 A : テレビもありますか。 B : いいえ、テレビはありません。 A :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B : 여기에 전화가 있습니다。 A : 텔레비전도 있습니까? B : 아니요, 텔레비전은 없습니다. * 電話(でんわ) 전화 * テレビ : 텔레비전 * ~になにがあります : ~에 ~이(가) 있습니다(사물)</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h3>니하오 쑹구위 <418></h3> <p>运动细胞 운동신경</p> <p>A : 小心, 小心点, 别~!! 小心点, 小心点, 小心点! (사려없이, 사려없이, 사려없이) B : 糟糕了。 糟糕了! (아니, 아니!) A : 你反应真慢! 你反应真慢! (너 반응이 느리) B : 我根本没有运动细胞。 我根本没有运动细胞! (저 사람에게는 운동신경이 없습니다)</p> <p>A: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B: 반응이 느려! A: 너 정말 느려! B: 나 운동신경이 없습니다!</p> <p>小心 (xiaoxin) 조심하다 糟糕 (zaocao) 망했다, 어딘가, 오차</p> <p><리틀치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h3>한자 이야기 <1058></h3> <p>一木難支(일목난지) 한 일, 나무 목, 어려울 난, 지탱할 지</p> <p>일목난지(一木難支)는 나무 한그루로는 지탱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기둥 하나로는 지탱하기 어렵다는 일주난지(一柱難支)와 같은 말이다. 무너지는 건물을 나무 기둥 하나로 지탱할 수 없듯이, 이미 대체가 기울어져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비유한다. 위(魏)나라 명제(明帝)의 사위인 임계(任愷)는 가충(賈充)이라는 사람과의 불화로 면직당하고 말았다. 그는 권세를 잃게 되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무질제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임계의 친구인 화교(和峤)에게 말하길, “당신은 어찌 친구인 임계의 방탕함을 보고만 있고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화교는 “임계의 방탕은 마치 북하문(北夏門)이 무너지고 갈아서 나무 기둥 하나로 떠받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오(非一木所能支).” 라고 대답하였다. (世說新語, 任誕篇) 화교의 말은 임계가 신중하지 못하여 몰락을 자초하였기 때문에, 무너지는 성문을 나무 하나로 떠받칠 수 없듯이, 자기 혼자 힘으로 그의 권세를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p> <p><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